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5. 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스위스, 공공장소에서 나치 문양 등 극단 상징물 금지
 - 4.18 언론은 스위스 연방하원이 공공장소에서 독일 나치·극단주의 상징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, 이는 지난해 아팔 전쟁 이후 反유대주의 선동행위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행위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
 - ※ 同 법안은 극단적인 증오나 폭력을 조장하는 독일 나치(하켄크로이츠)나 인종차별 상징물의 사용·착용·전시를 공공장소에서 금지
- 獨, 미군기지 정탐·파괴공작을 모의한 러시아 간첩 체포
 - 4.18 언론은 독일 연방검찰청이 우크라이나軍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독일 內 미군기지를 염탐하고 사보타주(파괴공작)를 공모한 혐의로 30대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※ 同人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, 독일 內 군사시설과 방산업체 등을 염탐하고 방화·폭파 공격을 모의

미주

- 美, 印-파키스탄間 '테러범 살해' 갈등 대화로 풀 것 촉구
 - 4.18 인도 국방장관이 "인도에서 테러를 범하고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면 뒤따라가 사살할 것"이라고 한 것에 대해 파키스탄은 이를 침략행위로 간주·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한 갈등상황에 대해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
 - ※ 파키스탄은 自國에서 지난해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 배후에 인도 정보기관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도 정부는 同 주장을 부인

중 동

- 헤즈볼라, 이스라엘 북부 드론 공격으로 군인 등 18명 부상
 - 4.18 언론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 마을 '아랍 알아람세'의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드론(무인기)으로 공격해 군인 등 1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
 - ※ 同 단체는 지난해 10.7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지속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과 로켓 등을 쏘며 전쟁에 개입
- 이라크 무장단체, 시리아 內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
 - 4.22 언론은 시리아와 접경한 국경마을에서 이라크 內 시아파 민병대가 트럭 후면에 고정된 발사대로 로켓포를 발사하여 시리아 북동부의 美軍 기지를 공격했으며, 현재까지 부상당한 美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해당 공격이 「시아 알수다니」 이라크 총리가 「조 바이든」 대통령을 만나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으며, 美軍 철수 협상에 진전이 없자 공격을 재개한 것이라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- 미얀마軍-叛軍, 1주만에 교전 재개로 피란민 1,600명 태국 월경
 - 4.21 언론은 미얀마 동부 국경지대에서 미얀마 정부軍과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(KNU)간 교전이 재개돼 피란민 1,600여명이 태국으로 월경했으며, 피란민 중 1명은 부상당한 상태였고 절반가량이 어린이와 노인이었다고 보도
 - ※ 이에 태국 외무부는 상황이 안정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양측의 교전이 국경을 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,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 軍, 알샤바브 조직원 50명 사살
 - 4.21 언론은 자국軍이 알샤바브를 상대로 공세를 벌여 고위급을 포함해 조직원을 50명 이상 사살했으며, 자국軍과 주바랜드 자치주軍*이 참여한 합동 군사작전에서도 알샤바브 조직원을 30명 사살했다고 보도
 - * 주바랜드는 소말리아 연방의 자치 행정구역으로 소말리아 남서부에 위치

日 기시다 총리 겨냥 사제폭발물 투척 사건

- '23.4.15(금) 11:30경 와카야마市에서 「기무라 류지」(24세)가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연설을 준비 중이던 「기시다 후미오」 총리를 겨냥하여 폭발물을 투척
 - 범인은 「기시다」 총리 10m 뒤에서 파이프 폭탄*을 투척하였으며, 1m 후방에서 약 50초 後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
 - * 20~30cm 길이의 은색 쇠파이프통에 발화장치를 넣은 사제폭탄, 인터넷 검색만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가방에 은닉 후 운반·투척도 쉬운 점이 특징
- 총리는 폭발 직전에 대피해 피해는 없었으며, 범인은 추가로 폭탄을 투척하려다 漁民과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후 체포
 - 범인이 '22년 참의원 선거 입후보 좌절 後 선거법 개정 소송 제기와 선거제도·정치인을 비판한 점을 고려, 정치에 대한 반감이 범행 동기로 추정
 - * '23.9 同人은 '살인미수와 폭발물 관련법 위반 혐의'로 기소
- 「아베 신조」 前총리 피살(2022.7) 後 9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일본内에서 사제총기에 이어 사제폭탄이 테러 수단으로 처음 등장
 - ⇒ 국내 모방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SNS上 사제폭발물 제조법과 화학물질 불법유통·판매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



사용된 사제폭탄

< 폭발물 테러 >

- (정의·종류) △ 군용 폭탄류, △ 다이어마이트 등 상용 폭발물, △ 급조폭발물(IED), △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지칭(급조폭발물과 사제폭발물이 널리 악용)
 - ※ 폭탄(폭발물)은 전원(Power), 스위치(Switch), 뇌관(Initiator), 폭약(Explosive)으로 구성
- (급조폭발물) 보통 기존의 폭발물에 약간의 개조·가공을 거쳐 전투·분쟁지역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원격 또는 부비트랩 방식으로 폭발하도록 꾸민 것을 통칭
- (사제폭발물) 폭발물 구성요소 4가지 재료를 각각 구해 만든 폭발물을 지칭하며, HME(Home made Explosive)라고 칭하기도 함(급조폭발물도 사제폭발물에 포함될 수 있음)
- (주요 사제폭발물 종류) △ 못·나사 등을 비산시켜 피해효과를 높이는 네일(못) 폭탄, △ 폭발압력을 최대한 응집했다가 확산시켜 폭발력 효과를 높이는 압력솔 폭탄, △ 양 끝단을 단단히 막은 금속파이프로 압력솔과 같은 효과를 내는 파이프 폭탄